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미 일자리 성장 '계속 탄탄'…6월 9만 8천 개
- WSJ: 미 해고 숫자 줄어…6월에 전월 대비 53% 줄어
- WSJ: 새 연준 의장, 7월 금리 인상할지 침묵
- Bloomberg: 연준 의장 "최근 인플레 리스크 하락"…물가 안정 강조

[미국 금융]
- JP Morgan: 미 '예외주의' 활력보이는데..불확실성은 증가
- CNBC: 오늘 미 국채 금리 상승세
- Bloomberg: 7월 S&P 500은 상승 랠리에 하락 리스크

[중동 전쟁]
- WSJ: 트럼프, 이란과 전면전 검토했으나 대화 모드로

[오일]
- CNBC: 오일가 하락세…이란, 카타르 회담 거부

트럼프 행정부]
- WSJ: 연방 대법원, 트럼프에 강제 추방 힘 실어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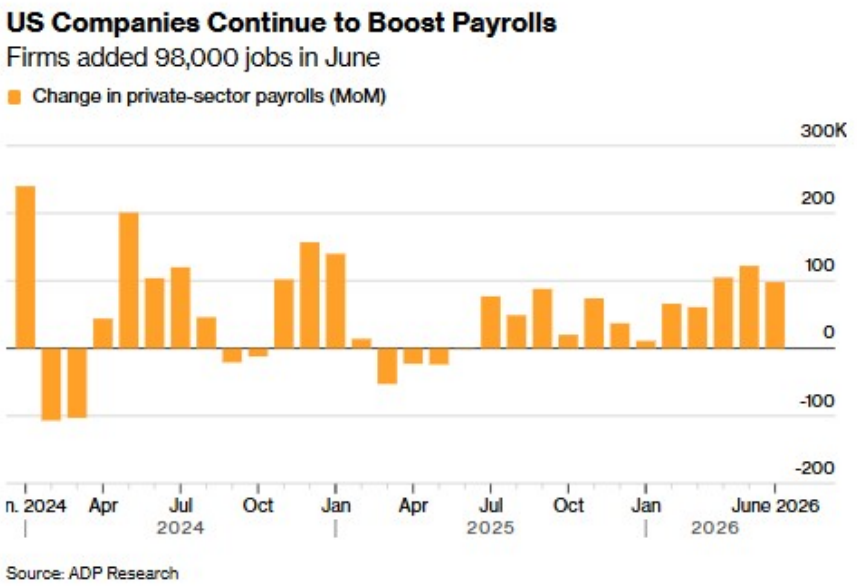
[주택]
- CNBC: 미 주택 변동금리 대출 금리 상승…수요도 줄어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Companies Added 98,000 Jobs in June, ADP Data Show
미 일자리 성장 '계속 탄탄'…6월 9만 8천 개

- 6월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 창출이 다시 한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며,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3개월 연속 고용 증가세를 기록했다.
- 일자리 조사 관련 ADP 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, 지난달 민간 고용이 12만 2천명 증가한 데 이어 6월에도 9만 8천명 늘어났다.



기사

WSJ: 2026 Layoffs Tracker: Job Cuts Dropped 53% in June
미 해고 숫자 줄어…6월에 전월 대비 53% 줄어

- 글로벌 재취업 지원 기관 Challenger, Gray & Christmas에 따르면, 6월 미국 기업의 감원 발표는 약 4만 5,000명으로 5월의 9만 7천명에 비해 53% 감소했다.
- 올해 누적 감원은 2025년보다 40% 적다. 하지만 2026년 상반기 수치는 감원이 급증했던 지난해를 제외하면 2020년 이후 동기간 6개월 중의 두 번째로 많다.
- 현재 AI로 인한 구조조정 발표는 계속되고 있는데 구인 규모가 늘어나고 해고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동 시장은 점차 강세를 띠고 있다.

기사

WSJ: Warsh Declines to Say Whether Fed Will Raise Rates in July
새 연준 의장, 7월 금리 인상할지 침묵

- 새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는 “다음달 정례 회의에서 집중적인 토론을 벌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할 말이 없다”라며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.
- 지난달 첫 기자회견 이후 포르투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.
- 이후 투자자들은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기 시작했으나, 시장이 보는 이번 7월 첫인상 확률은 50% 미만이다.

기사

Bloomberg: Warsh Says Inflation Risks Have Come Down, Vows Price Stability
연준 의장 “최근 인플레 리스크 하락”…물가 안정 강조

-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최근 몇 주간 물가 리스크가 낮아졌으며, 연준이 물가 안정을 달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.
- 워시 의장은 정책 결정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,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'포워드 가이던스(사전 안내 지침)'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.
- 또한 소통 방식을 검토할 태스크포스(TF) 등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으며, 다음 주 중 TF 위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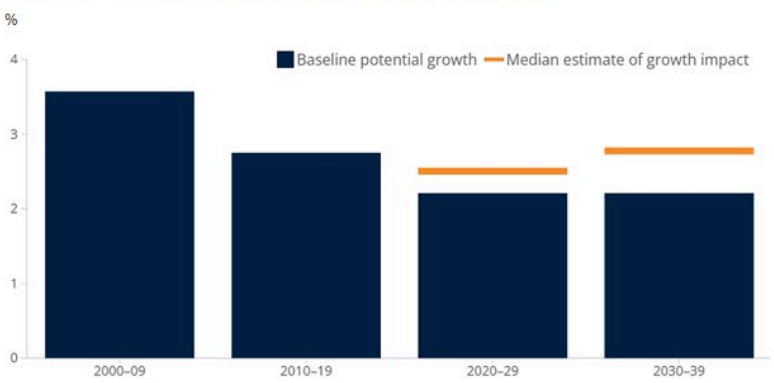
기사

[미국 금융]

JP Morgan: US exceptionalism is back but with fatter tails, thinner patience
미 '예외주의' 활력보이는데..불확실성은 증가

- 미국 금융 예외주의(Exceptionalism)의 건재함이 이란 갈등의 여파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: 이란 쇼크에도 불구하고, AI 주도의 자본 지출(CAPEX), 완화적인 금융 여건, 규제 완화 기조는 경기 상방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가르키고 있다.
- 고물가·고금리라는 거시경제 및 시장 체제(Regime)가 정상화되는 추세: 구조적으로 더 강해진 인플레이션, 높아진 기간 프리미엄(Term Premium), 이례적인 일일 시장 변동성은 점점 '뉴 노멀'로 받아들여지고 있음. 반면, 재정 및 부채 우려는 여전히 시장 가격 책정(Pricing)에서 현저히 과소평가되어 있음.
- 연준(Fed)의 금리 인상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으나, 세부적인 이견과 시각 차이가 많다: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회의론이 높은 가운데, 새 연준 의장은 포워드 가이던스 폐지를 강하게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, 향후 태스크포스(TF)가 어떤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임.
- 달러 가치 하락(Debasement) 베팅은 당장의 관심사에서 벗어나고 있다: 미국 달러화 금융 자산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탈달러화(De-dollarization) 우려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, 자산 가격에 금리 변동분이 반영(Repricing)됨에 따라 추가적인 금 비중 확대의 필요성을 줄어들고 있다.
- 중간선거는 변화를 이끌기보다는 다소 점진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: 트럼프가 임기 전반기에 주요 입법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, 기본 시나리오(Base case)로는 하원은 민주당이 우위를 보이겠지만 그 차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,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.

Figure 1: Possible impact of AI on global potential growth



Note: TFP = total factor productivity. Averages, weighted by gross domestic product (GDP), of production function-based estimates of potential growth. Sample includes 31 advanced economies and 52 EMDEs. Markers show the predicted impact of each scenario on global potential growth.
Source: Kose and Ohnsorge (2024); World Bank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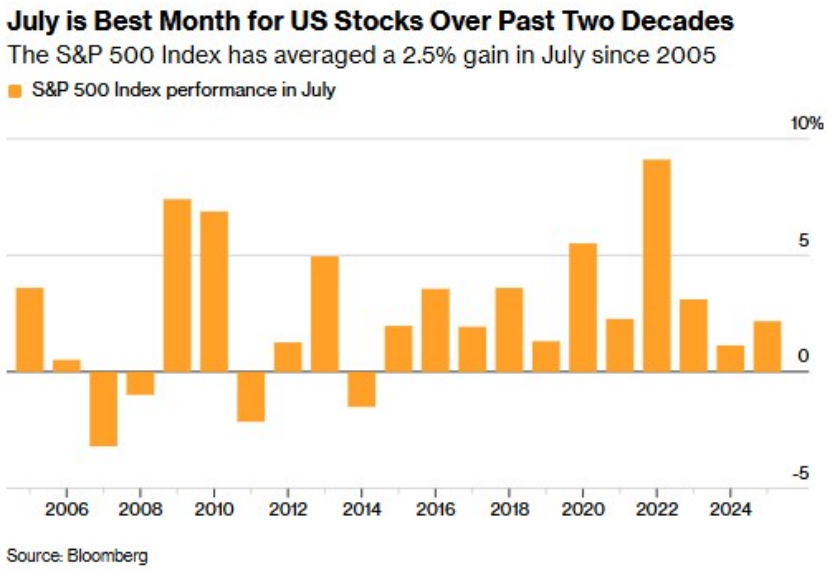
CNBC: U.S. Treasury yields edge higher as Fed Chairman Warsh speaks
오늘 미 국채 금리 상승세

- 오늘 수요일 미국 국채 금리는 투자자들이 일자리 데이터와 신임 연준 의장의 발언을 주시하면서 상승했다. 새 연준 의장은 “지금으로서는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할말이 없다”라고 말을 아꼈다.
- 오늘 수요일 오전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할부, 신용카드 대출 등의 기준이 되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6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4.477%를 기록했다.
- 단기물인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약 4.158%로 2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고,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7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4.977%를 나타냈다. 30년 금리는 5%에 다시 근접하고 있다.

기사

Bloomberg: S&P Winning Streak for July at Risk With Volatile End to Month
7월 S&P 500은 상승 랠리에 하락 리스크

- 지난 20년간 7월은 S&P500 지수 성과는 가장 좋은 달로, 2005년 이후 평균 2.5% 상승했다.
- 즉, 2014년 이후 7월에 하락한 적이 없지만, 올해는 하반기 변동성을 키울 대형 이벤트 우려를 보이고 있다.
- 7월이라는 계절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란 전쟁 여파, 금리 인상 공포 등 펀더멘털 리스크가 주식 장세를 위협하고 있는데 일부 전략가들은 손실에 대비한 헤지를 권고하고 있다.



기사

[중동 전쟁]

WSJ: Trump Briefed on All-Out War Options in Iran but Opts to Stick With Talks
트럼프, 이란과 전면전 검토했으나 대화 모드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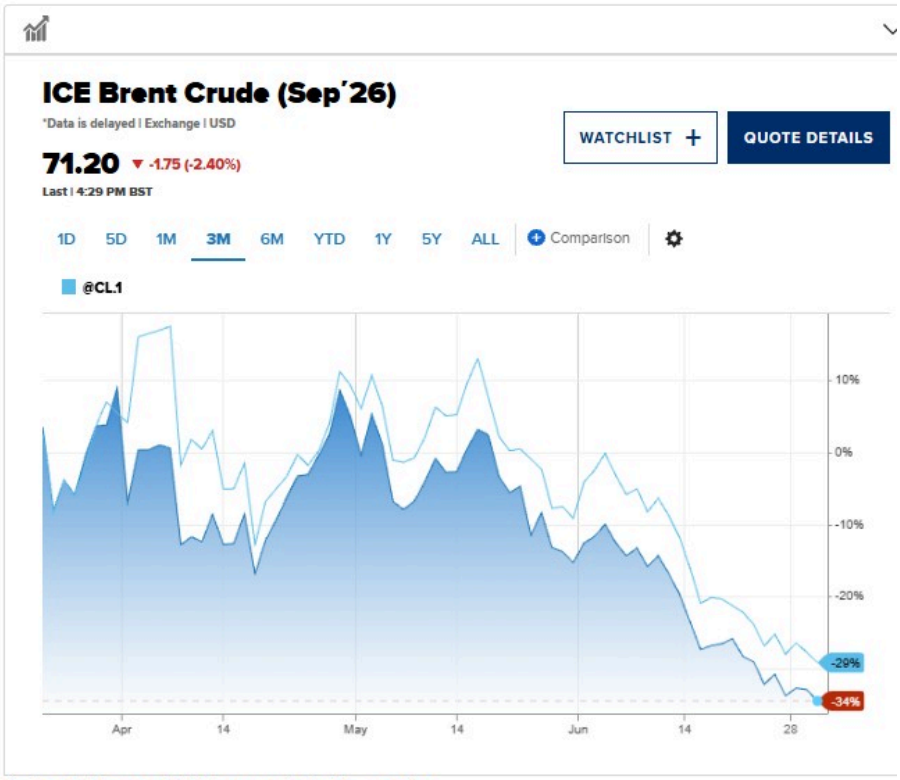
-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면전을 검토했으나 현재로서는 외교적 대화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미국 관료들이 밝혔다.
-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, 핵 활동 제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60일간의 회담에 돌입한 지 일주일이 넘었다.
-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와도 위기 소통 채널을 구축했으며,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대안들도 함께 고심하고 있다.

기사

[오일]

CNBC: Oil prices fall as uncertainty persists over U.S.-Iran talks in Qatar
오일가 하락세…이란, 카타르 회담 거부

- 이란이 카타르 회담에서 미국 대표단을 만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유가가 하락했다.
- 브렌트유 선물은 6월 한 달간 약 21% 폭락하며 2020년 3월 이후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했다.
- 앞서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글로벌 원유 교역 리스크를 야기한 무력 충돌을 멈추기 위해 6월 17일 14개 항의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한 바 있다.



Brent crude futures and WTI futures over the last three months.

기사

[트럼프 행정부]

WSJ: Supreme Court Gives Trump New Tools to Accelerate Deportations
연방 대법원, 트럼프에 강제 추방 힘 실어줘

-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기각했으나, 이민 단속을 강화할 다른 길을 열어주면서 트럼프의 강제 추방 권한을 확대하는 길을 열어 주었다.
- 즉, 인도적 임시 체류 허가(TPS, Temporary Protected Status)를 받은 이민자들을 정부가 더 수월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 주는 판결을 내린 것.
- 또한 연방 항소법원이 2년 이상 거주를 증명하지 못한 이민자의 신속 추방을 승인해 최대 62만 2천명이 추방 위기에 몰리게 된 상황이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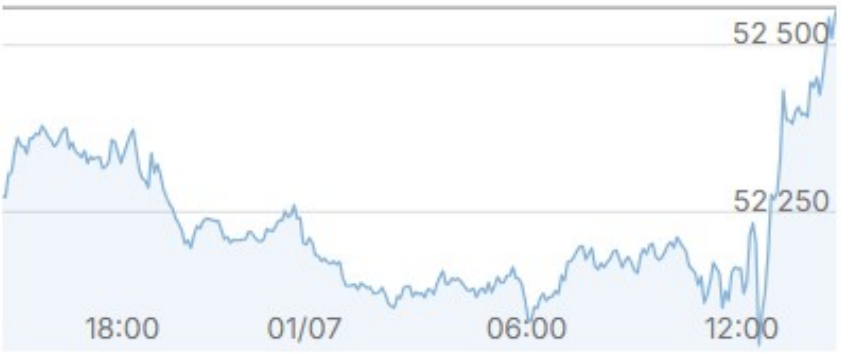
[주택]

CNBC: Demand for riskier mortgages drops, as their advantages shrink
미 주택 변동금리 대출 금리 상승…수요도 줄어

- 5년 만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(ARM: adjustable-rate mortgage)의 평균 금리는 5.68%에서 5.79%로 상승했다.
-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재융자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1% 감소했으나,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9%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.
- 주택 구매를 위한 담보대출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1% 증가했으며,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% 늘어나는 데 그쳤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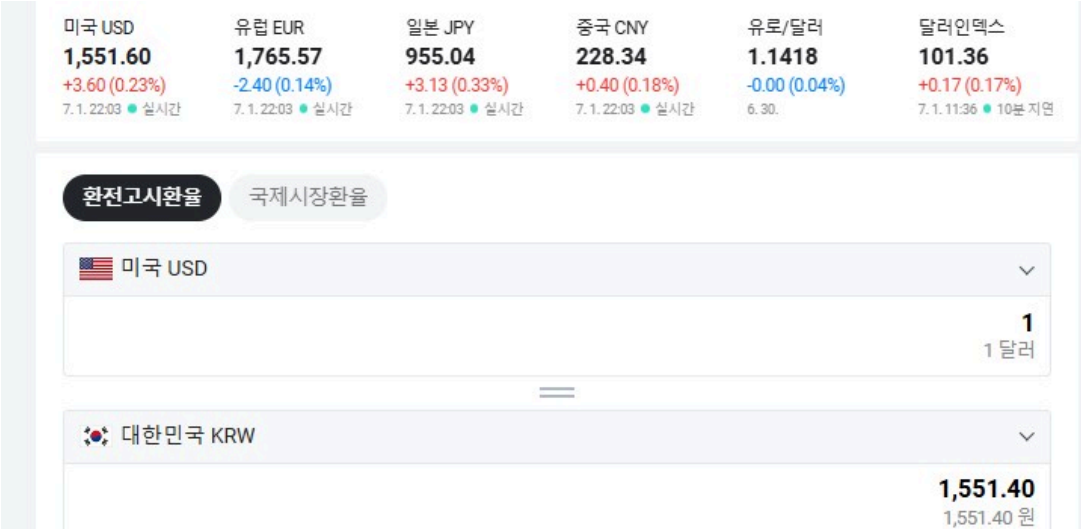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2,596.50	+278.7	+0.53%
US 500	7,515.00	+16.2	+0.22%
Dow Jones	52,594.25	+275.05	+0.53%
S&P 500	7,514.64	+15.28	+0.20%
Nasdaq	26,169.89	-43.83	-0.17%
S&P 500 VIX	16.08	-0.37	-2.25%
Dollar Index	101.157	+0.200	+0.20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	0/32	4.962	-0.003
10-Year Note	4.375	0/32	4.464	-0.005
7-Year Note	4.25	1/32	4.331	-0.010
5-Year Note	4.125	1/32	4.219	-0.015
3-Year Note	4.125	1/32	4.168	-0.020
2-Year Note	4.125	1/32	4.160	-0.035
1-Year Bill	0	0/32	3.980	-0.006
6-Month Bill	0	-1/32	3.965	-0.021
3-Month Bill	0	0/32	3.818	-0.010
1-Month Bill	0	-1/32	3.649	-0.031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